

2023. 7. 26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2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
도서관정책과

서울도서관장	오지은	2133-0200	
지식문화과장	최정민	2133-0201	
담당자	지식문화과	이현중	2133-0202
		홍서연	2133-0219
	도서관정책과	김채은	2133-0228
관련 누리집 (서울도서관, 책읽는 서울광장)		- <a href="https://lib.seoul.go.kr/">https://lib.seoul.go.kr/</a> - <a href="https://openlib.seoul.kr/">https://openlib.seoul.kr/</a>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5쪽

### 밤의 여행도서관, 대한민국편과 아일랜드편 개최 ... 다양한 각국 체험 프로그램 풍성

- 7월 4주차(7.28.~30.) 대한민국편과 8월 1주차(8.4.~6.) 아일랜드편 운영
- ‘대한민국편’ 도심 한가운데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현대+전통 문화 프로그램
- ‘아일랜드편’ 음악 북토크부터 악기체험까지 다채로운 문화공연프로그램

7월에 개장한 책읽는 서울광장의 야간 특별 프로그램 ‘밤의 여행도서관’은 대한민국편(7.28.~30.)과 아일랜드편(8.4.~6.)으로 각국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들에게 찾아간다.

- 시민들에게 여름밤의 특별한 밤독서 경험을 선사할 <밤의 여행도서관>은 7~8월 금·토·일 16시~21시 서울광장에서 운영된다. 매주 다른 국가들로 밤독서와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으며, 7월 4주, 8월 1주에 운영되는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편 외에도 8월 한 달 동안 이집트, UAE, 프랑스와 같이 다양한 국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.

## 현대와 전통문화가 합쳐진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여름밤의 대한민국편

- 〈밤의 여행도서관 - 대한민국〉은 K-문화의 인기로 방문이 증가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. 국내에서 유행하는 트렌드가 첨가된 전통 볼거리, 먹을거리, 즐길거리는 도심 속 풀밭 위에서 체험할 수 있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〈밤의 여행도서관〉 모습이 국내·외 방문객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.
- 일몰이 시작되는 시간,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퓨전국악 공연, 고전문학 뮤지컬 등의 노랫소리가 서울광장에 울려 퍼진다.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삼아 전통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. 〈밤의 여행도서관-대한민국〉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며, 상시 운영되는 부스는 총 8개로 부스마다 색다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.
  - 먼저, 내가 직접 만드는 ▲자개그립톡, ▲청사초롱, ▲석고방향제 제작 부스와 ▲수묵캘리그래피 부스까지 전통+현대가 어우러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. 여기에 더해 ▲약과 간식까지 이벤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으로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‘할머니얼(할머니+밀레니얼)’ 문화가 인기를 끈 점을 반영한 것이다.
  - 그 외 부스에서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에 더욱 깊게 빠져들 수 있는 놀이를 마련했다. 한복갓족두리를 써보며 그때 그 시절을 느껴보는 ▲전통의상 체험부스, 전통 놀이인 ▲떡매치기, ▲널뛰기, ▲국악체험, ▲어린이용 수노기 등 가족 단위로 알차게 즐길 수 있고, 외국인들 또한 쉽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.
- 또한, 이날 서울광장에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대형 토끼 조형물이 설치된다. 가족, 친구, 연인들과 달빛 아래에서 토끼와 함께 사진을 찍고, 별주부전 등 서울도서관 사서가 직접 선정한 고전 문학책을 읽는 즐거움은 밤의 여행도서관을 특별한 장소로 느끼게 해준다.

## 예술과 축제의 국가다운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질 아일랜드편

- 도시 곳곳에 문학과 관련된 명소 및 예술 작품이 가득한 국가답게 <밤의 여행도서관 - 아일랜드편>은 북토크, 전통 음악·댄스 공연 등 아일랜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8.4.(금) ~ 8.6.(일) 3일간 펼쳐질 예정이다.
- ‘아이리시 펍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북토크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? 아일랜드의 음악을 주제로 진행되는 ▲북토크는 아일랜드 여행기를 들으며 아이리시 음악과 그들의 음악세계에 더욱 알아볼 수 있다. 곧이어 해가 사라지고 은은하게 달빛이 비치는 시간에 ▲아이리시 전통 음악공연이 시작된다. 하프, 바우런 등 다양한 악기로 펼쳐지는 음악은 풀밭 위에 누운 채로 아일랜드 여행에 빠져볼 수 있게 한다.
- 8.4.(금)~8.6.(일)까지 상시 운영되는 부스에는 여행 느낌을 물씬 나게 할 페이스페인팅, 아일랜드 관련 북큐레이션, 아일랜드 팝을 들을 수 있는 청음존이 구성될 예정이다. 가족, 연인, 친구들과 풀밭위를 거닐며 <밤의 여행도서관-아일랜드편>만의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해보길 바란다.
- ‘책읽는 서울광장’ <누워서 세계속으로: 밤의 여행 도서관>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책읽는 서울광장 누리집과 사회관계망(SNS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  - 누리집 주소 : <https://openlib.seoul.kr/>
  - SNS 주소 : <https://www.instagram.com/seouloutdoorlibrary.s/>

-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“서울야외도서관은 앞으로 8월까지 국내·외 방문객들에게 <밤의 여행도서관>만의 즐겁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”이라며 “7~8월 매주 금·토·일 서울광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만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고, 서울시만의 ‘밤독서문화’를 누릴 수 있는 <밤의 여행도서관>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
붙임 1. 밤의 여행도서관 포스터 1부

